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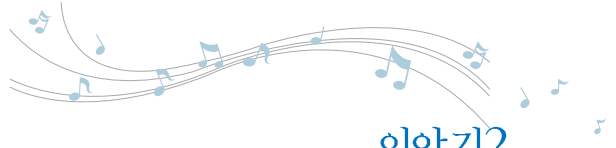


## # “매즌 딸 입니더”

## 이야기1

창녕에서 올라오신 ‘대동 맥’ 이라 불리운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셨다.  
“선생님요, 내 좀 도와 주이소, 잘 못 걷겠심더”  
“어르신, 제가 도와 드릴 테니까 같이 걸어 보이시더”  
“고맙심니더, 선생님. 그런데도 잘 안 걸어 지네예” 하시면서 치료실 문 쪽을 바라보신다. 그 곳에는 중년의 아주머니가 ‘대동 맥’ 어르신께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었다.  
“어르신, 누구예요?”  
“매즌 딸 입니더”  
“매즌 딸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자는 내 딸 친군데, 엄마가 없따꼬 캐서, 내한테 엄마라 카고, 내가 키웠심더”  
“그러면 어르신 맥이 잘 사셨나 보네요?”  
“어데예, 우리는 양과 농사 짓~심더, 엄마가 없다 카길래 내 딸로 삼아서 키웠심더, 그랬터니 내가 이레 병원에 있따꼬 찾아 오네예”  
어르신들의 그 수양딸은 꼬박꼬박 잊지 않고 퇴원하실 때까지 어르신들의 모습을 뵈고자 찾아오곤 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지만 사랑을 베풀고 사셨던 것이다.





## # “저 가사가 애절한기라”

## 이야기2

물리치료실에서 두 번째로 몸짱이신 할아버지는 현철의 노래를 좋아하셨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이제는 더 이상 남남일 수 없잖아, 너만 사랑하는 내 가슴에 이름표를 붙여줘~~’

“잠, 저 가사가 애절 한기라”

“어떻게 애절한데요?”

“‘놓치면 깨어지는 유리알처럼 사랑은 아픔’이라 카면서, 내 가슴에 사랑의 이름표를 붙여달라고 하니,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지…”

이번에는 ‘칠갑산 - 콩밭 메는 아낙네야, 베적삼이 흠뻑 젖는다~’

“저 노래 들으니까 눈물이 난다”

“어르신, 젊은 시절에 그런 아픔이 있었나 봅니다”

“내 나이 16살 먹어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5남매 동생들을 키우고 공부시키느라고 여름 태양벌(피약벌)에 남의 집 밭에서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어르신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남은 동생들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오셨던 것이다.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병원에 계시는 것이 못내 안타까우신 것이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활도 이제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내가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께서 나를 치료하셨던 것이다. 웅졸해질 때면 바늘 하나도 꽂을 수 없을 정도로 편협해지는 내 자신, 주위를 돌아 볼 줄 모르고 나 하나만 챙기려는 욕심, 여유를 모르고 아등바등 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상의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의 정신없는 소리라고 흘려들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말씀에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그것은 이승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그 동안 살아오신 당신들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안식을 맞을 준비를 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남기는 안타까운 후회의 말씀인 ‘3걸’이다.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지난날을 즐기면서 살 걸…

지난날을 어떻게 살아오셨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 계시든, 내 삶의 위대한 스승이 되신 어르신들께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정성이 조그마한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오늘도 어르신들을 맞으면서 물리치료실의 문을 연다.

